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포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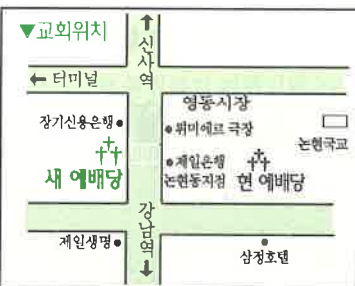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이전하게 됨으로써 제 2의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교회를 설립한 지 이제 만 2년 6개월, 짧은 기간 동안 부흥 성장해 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자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해 온 우리 교회는 주신 비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새 예배당을 지으려고 대지를 물색해 왔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교인을 현재의 건물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음을 인해 영구적인 예배당을 지을 대지를 구입하기 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넓고 나은 환경을 찾아 예배처소를 옮기게 된 것이다.

▶ 새 예배당의 위치와 규모

지난 4월 13일에 계약을 마치고 오는 5월 1일(주일)부터 예배를 드릴 예정인 새 예배당은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로 현 예배당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강남대로변 횡단보도와 근접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이 건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이필우 전 국회의원의 소유지에 건축한 것인데 이 의원은 새 건물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어 교회는 이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였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상 4층, 지하 1층인 새 예배당은 대지면적이 969.90㎡, 연면적 2721.30㎡로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의 거의 배가 되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경건한 예배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배당 이전

5월 1일(주일)에 입당예배



▲ 본당으로 쓰일 내부의 모습

▶ 매주일 찬양 예배 후 위원회 모임 - 기도회와 종합적인 의견 수렴

「감사와 질서 위원회」는 5월 1일, 이전하기 전까지 매 주일 찬양예배가 마친 후 5층예배실에 모여 기도회를 갖고 실행위원회의 협의 사항과 진행 사항, 건의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며 예배와 교육, 선교와 구제의 일들을 원활하게 감당하기 위한 장소 사용의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

기대된다.

▶ 현재 사용하는 건물의 용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부분적으로 당분간 교육관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몇가지 대안을 가지고 기도하며 연구, 검토 중이다.

▶ 「감사와 질서 위원회」구성

교회는 5월 1일 입당을 앞두고 「감사와 질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본 위원회는 당회장 이종윤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회원 전원과 권사회 임역원 전원, 교회학교 부장 및 부감 전원, 남선교회·여전도회 회장단 전원, 찬양대 대장 및 부대장 전원으로 구성하였다.

▶ 실행위원회 가동

또한 「감사와 질서 위원회」는 실행위원회를 두어 예배당 이전에 관한 실질적인 일들의 책임을 위임하기로 하고 실행위원회의 총간사로 오정수 장로를, 그리고 이용선·박철훈·이남호·이영렬·홍정호·김대호 장로와 최난수 권사(권사회 회장), 김일용 집사(남선교회 연합회 회장), 양숙란 권사(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서문석 집사(제직회 서기), 임진태 목사를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다. 실행위원들은 5월 1일에 입당예배를 드리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정면의 모습



측면의 모습



옥탑층의 모습

창세기강해



기억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8장 1 ~ 19절)

이 중 윤 (목사 · 당회장)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가 육백세 되던 해였습니다(창7:11). 육백세 되던 해 이월 십칠일에 비가 오기 시작하였고 육백 일년 정월 일일에 물이 건져서(창8:13), 이월 이십 칠일에 땅에 물이 마른 후에야 비로소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년 열흘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노아는 그 안에 있던 것이 답답했던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주지 아니하시는 일에 대하여 걱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의 노아의 마음에 생긴 의구심 중에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신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창세기 8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권념하셨다 함은 기억하셨다(remember)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증거가 몇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땅의 물을 감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지 않으셨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이 물을 감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육지와 구분하시고 풀과 나무들이 새롭게 나타나 보이셨으며 마침내 새 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비둘기를 통해 물의 감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처음 까마귀를 내어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노아에게 무익한 동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성경은 ‘까마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착할 나무가 보이지 않자 다시 돌아왔으나 두번째 날려 보냈을 때에는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서 생명이 움트고 있다는 소망

의 소식을 기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에는 땅의 물이 완전히 감하였다는 보고로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의 역할을 통해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를 잊지 않고 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그리고 땅에 번성하라”(16, 17절) 라고 하신 말씀은 노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요, 명령이며 동시에 노아를 잊지 않으셨다는 중요한 계시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할 일을 하면서 순종하면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방주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명령에 순종했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여 방주에서 나왔고, 생육하고 번성하라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창19:29), 이삭의 아내 라헬을 기억하셨으며(창33:22),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계십니다.(시9:12, 136:23).

2. 하나님을 기억한 노아

우리는 20절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노아도 기억하고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교훈도 중요하지만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한 사실도 중요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상고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는 동안 세상 만물이 심판을 받아 다 죽었으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선택된 육축들만 살았습니다. 우리도 본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함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12:1),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삽나니”(은2:7).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3. 새로운 명령과 새 언약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노아도 기억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이 범한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십니다.

첫째로, 다시는 홍수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8:20 ~ 22).

둘째, 형벌제도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9:1 ~ 7).

셋째, 무지개 언약입니다(9:8 이하).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우시고 친히 말씀하신 영원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노아 계약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구원의 언약일 뿐 아니라 자연법조차도 은혜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받고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해 주시는 자녀 된 것을 감사하며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향기나는 제물을 바친 것처럼 날마다 영광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킬림 ✦

사랑의 묘약

용서할 수 없는 여물을 용서하는 것이 참 용서이고 사랑할 수 없는 이를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면 역설이라고 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구약의 가르침은 사랑의 표준이 자신에게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표준이 주님에게 있는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학자는 타인을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전자의 논리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논리는 새 계명임에 틀림없다.

이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 보자. 그리하여 민족과 개인의 이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묘약을 우리 주님이 베푸신 사랑 밖에는 없는 줄 믿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자.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면서

장애인 실태와 교회의 책임

자료제공 / 한국 밀알선교단

올해도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일을 맞이한다. 장애인의 날은 1981년 유엔에서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정부에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선포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장애인 주일은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선교 연합회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몇몇 교회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990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의 약 2.2%인 100만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10%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의 개념이 좁게 해석되고 있고 사회적인 편견으로 장애인구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게 추산된 것이다.

장애인과 그의 가족의 수를 생각할 때, 장애인의 문제는 다수의 문제인데 복지의 수준은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보면, 40만원 이하가 57%로 대부분 빈곤계층임이 나타나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인구는 35%로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나 민간 기관의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13.6%에 불과하다고 한다.

있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동정이나 구제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 복음으로 변화받아야 할 귀한 생명으로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고치시고 복음을 들려주신 사건이 여러번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치셨다고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선교사역은 중단됨이 없었다.

복음은 장애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장애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준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안겨 주고 장애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는 일에 도전을 준다. 모든 사람이 구원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장애인들에게도 미치도록 교회가 할 일, 성도들 개개인이 할 일을 한 번 돌아보는 주간으로 삼음은 어떨까?

5월 1일 새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새 포도주도 준비되었나?

새로운 처소가 허락되었다. 이 소식을 접하고서는 처음 서울교회가 서던 때의 간절했던 마음을 떠올려도 보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생각도 해 보며 그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입당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한 집안의 살림도 이사가려면 복잡하기 마련인데 2년 반동안 꾸려온 살림을 정리하고 옮겨야 함과 동시에 예배드리기에 적합하도록 새 집을 단장하고 들어가야 하는 일이 보통 큰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새로 지은 건물이고 지금보다는 넓다고 해도 예배당으로 설계하여 지은 집이 아니기에 시설을 보완하고 절충해야 할 일이며, 예배 뿐 아니라 교육과 선교, 구제의 사명을 간단없이 진행해야 할 곳이므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데 시간은 촉박하여 정확한 판단과 지혜와 순발력이 요구되는 때다.

서울교회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입당예배에 앞서 이제 두 주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웃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스도를 만난 때의 첫사랑의 마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당시 바닥에 무릎 꿇고 간구하던 복음을 향한 불붙는 마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며 거저 하나님의 명령만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했던 뜨거웠던 믿음이 조금 식어져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다. 창립 당시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초에 하나

님 앞에서 세웠던 계획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 방향은 과연 흔들림 없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 보아 절절한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 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비뚤어진 것은 바로 잡고 모자라는 것은 보충하고... 혹시나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내실보다는 형식에 치우쳤던 것은 없는지, 그래서 이 다음에 심판하실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하시거나 "네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실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야 하겠다. 연초에 직분을 받으면서 불붙는 마음으로 서약했던 일들을 생활의 어떤 일들보다 우선하여 행하기에 힘썼는지, 얼마나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 왔는지, 내가 속한 교회학교, 선교회, 전도회의 활동은 교회가 지향하는 오직 그 방향으로 땀을 흘리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아 후회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새 처소에서 맺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새 문에 들어서야 한다. 그래서 새 집에서도 계속될 일들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이고도 부끄럽없이 진행되도록 해야겠다.

또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재고해 보는 귀한 기회가 될 것 같다. 얼마 전, 찬양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교회의 주요 지표로서 강조되어 온 선교의 사명을 부족함없이 감당하기 위해 흠뻑이(2)한다. 새 예배처소가 지금보다 넓어진다고 평안함과 안일함에 빠진다면 작금 한국교회 어두운 부분인 무기력증에 야합하는 결

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제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무리에서 넘쳐나는 복음의 소식을 만민이 듣는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각 선교회, 전도회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첩경으로 행해야 할 것이며, 다락방의 말씀공부와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형제들을 격려하기에 인색치 말고, 고난 중에 처한 자를 돌아보며 따뜻하게 위로하는 일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감사와 찬양하는 소리로 새 처소를 뜨겁게 달구어야 한다.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 올 때이며 자다가 깰 때이니 서로 서로를 깨우고 일어나자. 그리고 더 좋은 우리 예배당을 짓는 일에 한마음 되도록 힘을 모으자.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 - 이것이 은혜라 했다. 구원의 은혜도 측량할 수 없으며 날마다 받는 사랑의 선물을 감당하기가 벅하다. 이 은혜를 감당할 길이 무엇일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묵상해 보나니, 새 부대가 준비되었다고 감사와 감격에 벅차듯 그 부대에 담을 새 포도주도 준비되어 있는가?

새로운 처소를 허락하신 것은 어쩌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소명의식도 새로와져야 함을 깨우쳐 주시는 기획인 것 같다.

브니엔
하나님의 얼굴

개념탈피가 있어야

수학에서 1+1=2이다. 다른 답은 정답이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정답이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이 개념은 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개념들을 틀에 묶어 놓고 한발짝도 앞으로 가질 못했다. 밀밭 사이를 거닐며 이삭을 주워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그들의 시각은 범법행위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행위도 결코 묵인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개념의 고정화는 본질보다 개념을 더 중요시 하는 데서 기인한다. 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의 집행은 인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범한 오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드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안식일에 지켜야 할 일들을 개발하는 대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열거하다가 율법의 울무에 걸린 것이다.

어린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자주 넘어지는 훈련의 연속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법이다.

차선이 그려진 이유가 자동차의 운행을 조마조마하게 하기 위함 이 아니고 서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때가 그렵다.

목회자 동정

이종윤 목사 -

『하나의 성경』 방향을 모색하는 신학자 간담회 주관

이종윤 목사는 4월 21일(목) 오후 3시부터 연지동 여전도회관 14층에서 열리는 신학자간담회에서 한기총 산하 교회발전위원회 회장의 자격으로 "성경공회 창설은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한다.

표준 새번역 출간과 함께 시작된 '대한성서공회'와 '성경공회'의 공방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이번 간담회에는 장로교에서 7개교, 감리교에서 3개교, 성결교에서 2개교, 그리고 침례교와 연합교육기관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등 14개 신학대학의 총학장을 비롯한 56명의 신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표준 새번역 성경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표준새번역성경을 놓고 신학대학의 교수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간담회에서의 의견들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우 동정

신용식 성도(10교구 길동 다락방)는 지난 12일(화)에 주식회사「세현」을 창립하고 예배를 드렸다.

(주식회사「세현」/ 강남구 삼성동 151-6 ☎ 545-9259)

70인전도단 - 『전도 간증의 밤』 마련

4월 22일(금) 9시 금요기도회에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70인 전도단에서는 전도의 실재를 알고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전도간증의 밤」을 마련하였다.

4월 22일(금) 저녁 9시 금요기도회 시간에 6층에서 가질 이날의 간증 집회는 1993년 한 해 동안에만 8,800명, 1994년 현재 1,500명을 교회로 인도한 양경애 집사를 초청하여 그의 전도 방법과 비결을 듣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70인 전도단원 뿐 아니라 온 성도들의 전도생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공동의회 - 6월 19일과 26일에

안수집사·권사 선출키로

집사와 권사 각각 30명씩

당회는 날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도하던 중 공동의회를 통해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기로 하였다.

안수집사와 권사를 각각 30명씩 선출하려는 이번 공동의회는 6월 19일(주일)에 안수집사를, 6월 26일(주일)에는 권사를 선출하기 위해 소집된다.

집사의 자격은 무혼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1925년 이후, 1964년 이전에 출생한 자)인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10절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권사는 무혼입교인으로서 5년을 경과하고 45세 이상(1925년 이후, 1949년 이전에 출생한 자)으로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헌법해석서 제5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회가 후보자를 천거하여 공동의회에 제출케 된다. 공천인원은 각각 45명 이내로 하되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2차 투표까지 하기로 했다. 단, 2차 투표시에는 남은 자의 1.5배로 득표수에 따라 후보를 천거한다.

당회가 추천한 후보는 6월 12일자 「순례자」에 공고할 예정이다.

4월 25일 목회자세미나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성경해석과 강해설교」- 계지영 목사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이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 5월 1일 입당을 위한 준비를 은혜와 질서 속에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우리 민족을 전쟁의 소문과 갖가지 위기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4.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